

## 아버지 브라마의 순수한 소망

오늘 밥다다는 그의 승리하는 보석들을 보고 있다. 오늘 신봉자들은 비제이 다쉬미 (= 다세라. 여신들을 불러내는 축제 후의 열흘째 밤에 라반을 불태우는 축제)를 축하하고 있다. 신봉자들이 그것 (라반의 형상)을 태우고 있을 때 너희 자녀들은 만남을 축하하고 있다. 너희가 이 만남을 축하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운 다음이다. 신봉의 길에서 라반을 불에 태우고 승리를 얻은 후에 그들은 어떤 만남을 축하하느냐? 너희는 신봉의 길에서의 일들을 아주 잘 안다. 라반을 죽인 다음 단계는 무엇이나? 그것을 가리키는 표시는 무엇이나? 바라트 (왕위 계승자였던 라마의 동생들 중 하나)와의 만남이다. 이는 형제애의 단계다. 봉사와 사랑은 너희의 형제애의 시선을 나타낸다. 딥말라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시다. 형제애의 시선은 봉사에서 성공의 토대다. 이것 없이는 너희가 딥말라를 축하할 수 없다. 형제애의 시선, 딥말라 없이는 주권의 톨락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의 기념물인 비제이 다쉬미를 축하했느냐? 이 축하의 기반은 여덟 번째 밤에 대한 축하다. 아슈트미 (8일째 밤)에 대한 축하 없이는 승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너희는 얼마나 먼 데까지 가서 가졌느냐? 여덟 번째 밤을 축하했느냐? 너희 모두 “나브 두르가” (아홉 여신)가 되었느냐? 이것은 여덟 힘과, 아홉 번째는 전능한 분을 의미한다. 너희는 여덟 가지 힘 모두의 화신이며, 아홉 번째 힘으로서 전능한 권위자 아버지의 동반을 받고 있느냐? 너희는 그러한 “나브 두르가”가 되었느냐? 너희가 다세라를 축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희들이 두르가가 되었을 때, 즉 너희의 결함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모든 미덕으로 완전해졌을 때뿐이다. 그래서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이 다세라를 축하했는지 여부를 보려고 왔다. 너희가 다세라를 축하했는지 여부와 너희가 아슈트미를 축하했는지 너희들은 각자 제 자신을 아주 잘 안다. 너희는 불멸하는 성냥개비로 불을 지폈느냐, 그저 일시적인 성냥개비로 불을 지폈을 따름이나? 너희는 라반만 불에 태웠느냐, 그의 자손들까지 모두 불태웠느냐? 너희는 라반을 죽이기만 했느냐, 라반의 왕국 전체를 완전히 다 멸망시켰느냐?

오늘 아버지 브라마와 쉬브 바바는 서틀 리전에서 얘기를 나눴다. 언제였겠느냐? (수업 시간ですよ.) 너희 자녀들이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를 밥다다도 역시 듣는다. 다세라를 축하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너희 자녀들 대부분은 “네”에도 손들지 않고 “아니오”에도 손들지 않았다. 심지어 바바에게 편지를 쓸 때도 너희들은 대답하기를 아주 영리하게 피한다.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의 대답은 명확하지가 않다. 너희들 모두 서너 가지의 표준 답변을 안다. 너희가 바바에게 한 대답은 그것들 중 하나였다. 그래서 아버지 브라마와 바바는 진심의 대화를 가졌다. 우리들의 집으로 가는 문을 열기 위해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 자녀들을 불러내고 있다. 비록 오늘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이 모두 종이에 답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너희 마음에 바바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오늘 수업 중에 이 자녀 (다디지)는 모든 이에게 이 질문을 했고 밥다다는 모든 이의 대답을 지켜봤다. 바바는 너희들의 대답의 핵심요지를 이미 너희에게 알려줬다. 너희들에게 그걸 한 번 더 얘기해줄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너희의 답변을 보자마자 브라마 바바가 뭘 했겠느냐? 그가 한 일은 아주 좋았다. 너희들은 브라마 바바의 특별한 산스카르를 안다. 그는 언제나 이 특별한 산스카르로 그의 배역을 연기했다. 그가 뭘 했겠느냐? 그 특기는 쉬브 바바가 그에게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너희의 답변을 보고 그는 1초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후에 말했다. “당신은 오늘 제 소망을 이뤄주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브라마가 말했다. “오늘 제게 열쇠를 주십시오.” “무슨 열쇠 말이나?” “모든 이의 지각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완성시키는 열쇠 말입니다.” 초창기에 그는 모든 보물들에 대한 열쇠를 찾았다는 도취감과 그 보물창고를 열려면 그저 간단히 그 열쇠를 쓰기만 하면 된다는 도취감을 느꼈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 브라마는 오늘 쉬브 바바에게 모든 이를 완성시키는 열쇠를 달라고 청했다. 브라마 바바를 육신의 형태로 본 경험을 가진 자들은 이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쉬브 바바가 열쇠를 브라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브라마에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은 여전히 “네”라고도 “아니오”라고도 대답하지 않고 있구나.

어쨌든 아버지 브라마가 너희 자녀들 모두가 완전해지는 것을 보려는, 너희가 미래에 완성되는 것 말고 지금 완성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깊은 소망을 틀림없이 갖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둘이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브라마 바바의 얼굴은 딥말라 (빛의 염주)처럼 환해진다. 대양의 마스터

에게는 너희 모두를 완전하게 만들어 뱀말라의 불을 밝히려는 열의의 엄청난 파도가 물결치고 있다. 사카르 시절 초기부터 아버지 브라마가 어떤 특정한 말을 듣기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았는지 아마 너희들도 경험했을 것이다. 어떤 단어들이었느냐? 그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도 이 말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도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바바는 “언젠가는 (카브) 제가 그걸 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는 모든 것을 지금 (아브) 했고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고취했다. 봉사 계획에서든 어떤 이의 자기 변화에 있어서든 그는 늘 “지금 당장 가거라! 당장 지금 그걸 해라! 비록 지금 네가 기차를 잡아탈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는 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기차가 여기서부터는 늦게 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 했다. 그러니 바바의 산스카르가 뭐였느냐? “지금 당장!”이었다. 언젠가 또는 때때로, 가 아니라 “지금”이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이라는 특별한 언어를 들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오늘 서틀 리전에서 비로 그 언어를 사용했다. 자녀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다! 바바가 너희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마. 그게 뭐였겠느냐? 그 자신이 완성되었으며 완전하기 때문에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 자녀들이 “저희가 언젠가는 (카브 카브)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다. 그는 전적으로 놀라서 어째서 자녀들이 변화할 수 없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이 어째서 “언젠가는”이라고 말하는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자꾸 묻는다. 드라마에 대한 의문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것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다. 드라마를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드라마를 지켜보면서 아버지에게 농담을 건네는 것은 너희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농담하도록 허락 받았다, 그렇지 않겠느냐? 쉬브 바바도 역시 미소지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브라마가 지금 뭘 원하는지 너희들은 안다. 이제는 너희들 자신을 해방시켜서, 해방의 나라로 가는 문을 열기 위해 아버지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녀들에 대한 브라마 바바의 순수한 소망이다. 이제 너희들에 대한 아버지의 순수한 소망이라는 등잔에 첫 번째로 불을 점화함으로써 디왈리를 축하해라. 이 하나의 등잔불로부터 뱀말라 전체가 (등잔불들의 염주) 점화될 것이다. 이해하느냐? 앗차, “바라트와의 만남”의 의미에 관한 얘기는 바바가 다른 때에 들려주겠다. 앗차.

밥다다의 고귀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자들에게, 결단력이라는 불멸하는 성냥개비로 등잔에 불을 켜서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에서 사카르 바바처럼 “지금”이라는 언어를 쓰는 자들에게, “언젠가” 하겠다는 생각을 중단하고 얼굴에서 사카르 바바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그런 승리하는 보석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 쿠마리들을 만나심.

쿠마리들은 날아다니는 새들인데 왜냐하면 쿠마리는 언제나 가벼운 이, 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쿠마리라 함은 전혀 아무런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가벼운 사물은 뭐든지 위로 떠오른다. 변함없이 저 높은 위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고귀한 단계를 가진다는 뜻이다. 너희들은 이러하냐? 너희는 어디에 도달했느냐? 바바의 슈리마트에 의해 그어진 선 안에 한결같이 머무는 자들은 끊임없이 저 위에서 날아다닌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그어진 선 안에 머무는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참된 시타들이다. 너희들 모두 참된 시타들이냐? 확실하냐? 너희가 그 선 밖에 걸음을 딛을 때 라반이 올 것이다. 라반은 너희들 중 누구라도 그 선 밖으로 발을 내딛으면 즉시 데려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그럴 때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쿠마리는 참된 시타인 자라는 뜻이다. 여기를 떠나자마자 변하지 마라. 마두반에 있을 때 너희는 마두반의 분위기라는 축복에 영향 받는다. 여기 있을 때 너희는 가외의 승강기를 받는 반면, 밖에서는 발전하려면 너희가 노력해야 한다. 밥다다는 쿠마리들을 보는 것이 천 배나 더 기쁘다. 너희들은 죽임 당하는 데서 구제되었으니 그가 행복하지 않겠느냐? 앗차, 여기를 떠나기 전에 지금 확고하게 약속해라.

### 판다바들에게 말씀하심.

판다바인 너희들 모두 삭티의 화신들이냐? 삭티들과 판다바들이 결합되어 있느냐? 전능한 권위자 앞에 올 때는 너희가 삭티들이고,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을 때는 너희가 판다바들이다. 전능한 권위자를 기억하는 동안 너희가 삭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역할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영혼들 각각은 시타이며, 지고의 영혼은 라마다. 그러니 이 배역을 연기하는 데 대단한 즐거움을 가져라. 합류시대의 가장 경이로운 배역은 판다바들이 삭티가 되고, 삭티들이 형제가 되는 때다. 이렇게 할 때는

너희가 몸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잊었음을 증명한다. 각 영혼마다 남성과 여성, 양쪽의 산스카르가 다 들어있다. 때로는 너희가 남성의 역할을 행했고, 다른 때는 여성의 역할을 행해왔다. 합류시대에 너희는 사랑하는 자로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분을 기억하는 즐거움을 받았다. 너희들은 제 자신을 샅티라 여기며 전능한 권위자를 기억한다. 시타가 되어 라마를 기억해라.

####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심.

샅티 군대에 속하는 너희 샅티들은 무기를 항상 지니고 다니느냐? 샅티들과 함께 묘사되는 장식품들은 그들의 무기들이다. 항상 무기를 지니고 있는 자들은 대 기부자들이며 축복의 공여자들이다. 너희는 무기를 늘 지니고 있느냐?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그러하냐? 전능한 권위자를 이리로 데려온 것은 샅티들의 타파샤였다. 샅티인 너희들은 이제 전능한 권위자를 드러내야 한다. 너희는 매 발걸음마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품고 있는 좋은 염원으로 모든 이를 축복해줘야 한다.

행복의 대양의 자녀인 너희들은 변함없는 행복의 화신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 만남을 축하하는 행복으로 끊임없이 그네를 타고 있지? 먹고 마시고 걷고 움직여 돌아다니는 동안 너희는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지? 생각으로도 너희에게는 슬픔의 파도가 오지 않는다. 너희들 각자가 변함없는 행복의 화신이다. 너희가 반 사이클 동안 슬픔의 세상에 있어왔고 지금 이것은 행복을 경험하는 때이므로 너희는 슬픔과는 이미 결별했다. 너희들은 이미 행복의 대양을 찾았는데 무엇 때문에 슬픔을 가지겠느냐?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변함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축복을 받았다.

#### 아비약트 멀리 몇 개에서 뽑은 질문과 대답.

**질문:** 물질의 편의시설들이 다 끝났을 때 너희가 그때 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냐?

**대답:**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너희 생각을 강력하게 만드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너희가 여기서 생각하면 그것의 결실이 거기서 경험될 정도로 그렇게 너희의 생각에 큰 힘이 들어있게 해라. 아버지가 신봉의 결실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귀한 영혼인 너희들은 가족들에게 협조라는 열매를 줘야 하고 그 열매에 대해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 봉사를 시작해라.

**질문:** 너희는 밥다다에게서 어떤 불멸의 보물들을 받았느냐? 그 보물들에서 너희는 어떤 성취를 얻었느냐?

**대답:** 1) 첫 번째이며 제일 큰 보물은 지식의 부이며, 그것으로 너희는 낡은 몸과 낡은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속에서 해방을 얻고, 해방의 나라로 간다. 2) 요가의 보물로 너희는 모든 힘을 다 받는다. 3) 다르나의 보물로 너희는 모든 미덕들을 다 받는다. 4) 봉사의 보물로 너희는 축복과 행복의 보물들을 받는다. 5) 합류시대의 때는 가장 위대하고 값은 매길 수 없이 귀중하며 이때 너희는 모든 보물을 다 축적한다.

**질문:** 합류시대의 때가 더 없이 귀중한 이유는 무엇이나?

**대답:** 신, 아버지와 신의 자녀들의 사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합류시대에 뿐이며, 이 만남은 다른 어떤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2) 너희가 밥다다에게서 모든 보물을 다 받는 것은 합류시대에 뿐이다. 다른 어떤 시대에도 너희는 아무 보물도 축적하지 못하고, 그걸 저축해둘 은행도 없다. 3) 합류시대에는 단 한 생 동안 너희가 여러 생 동안을 위해 보물들을 축적해둘 수 있다.

**질문:** 보물들을 주고 있는 이는 오직 그 분뿐이다. 그는 동시에 모든 이에게 똑같은 보물들을 주지만, 보물들은 등수대로 훈습된다. 어째서 그러하냐?

**대답:** 그것들을 훈습하는 데는 각자의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첫째로 너희의 노력을 통해서 각자 보상을 창조한다. 둘째로 너희는 한결같이 충족된 상태로 머물러야 하며 다른 모든 이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충족이라는 특기로 너희는 보물들을 축적할 수 있다. 셋째로 봉사함으로써 너희는 행복이라는 보물을 얻을 수 있다.

**질문:** 남들과 연결이나 관계를 맺을 때, 봉사에서 너희들의 자선과 축복의 계좌가 아주 쉽게 축적될 수 있게 너희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느냐?

**대답:** 도구라는 의식이 늘 있게 해라. 겸손하고 이타적이 되어라. 언제나 모든 영혼에 대해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지녀라. 그러면 남들과 연결이나 관계를 맺을 때 너희가 아주 쉽게 자선과 축복의 보물들을 축적할 수 있다.

**축 복:** 무한한 무관심을 갖고 아버지 한 분 안에서 세상 전체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라. 아버지를 그들의 세계라 여기는 자들만이 무한한 무관심을 가질 수 있다. 아버지를 그들의 세상으로 가진 자들은 오직 그 세계에만 머물고 남들의 세계로는 들어가지 않으며 따라서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것에서 물러선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과 물질적 안락함이 포함된다. 아버지의 부가 곧 너희들의 부이니, 이 인식을 유지함으로써 너희는 무한한 무관심을 지닌 자가 될 것이다. 남들을 보면서도 너희는 그들을 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아예 너희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슬로건:** 강력한 단계를 경험하려면 홀로 있음과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균형을 유지해라.

\*\*\* 음 샐티 O M S H A N T I \*\*\*